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태양은 공중에 떠 있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낭창낭창 흔든다. 벌써 질어진 녹색 나뭇잎들은 기름 바른 듯 환황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 '별 좋고 바람 좋고, 참 좋은 계절이다' 하며 감탄을 한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죽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인생의 길흉화복을 두루 겪고 인생을 알 만큼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나는 이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궁리해도 이 물음은 불가해하기 짝이 없다.

인류는 오랫동안 불사여의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 하지만 환속이나 죽지 않는 소망은 가망 없는 것이다. 인간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죽음을 맞는다. 아버지는 십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 땅속에 매장된 시신은 부패하고 원소로 해체되어 사라졌을 테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살아서 무병장수를 꿈꾸었음에도 모를 그들은 결국 흙에서 묻힌 채로 썩어 분해되었을 테다. 생명 활동을 마치고 사라진 존재들, 시신이 썩어서 존재 이전으로 돌아간 존재들은 덧없고 애잔하다.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한 가지 의문은 '신은

썩는 것은 축복이다!

왜 결국 무로 돌아갈 존재를 창조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토록 생생한 분성과 감각, 지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

적정 온도에서 방치해 둔 음식물은 부패한다. 음식물은 흐물흐물 문드러지고 악취를 뿜어내며 썩는다. 실은 보관한 떡이 쉬어 곰팡이가 슬었을 때 어린 나는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던지. 주방의 부패한 음식들은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서둘러 이것을 쓰레기로 분리하고 처리한다. 음식물만이 부패하는 건 아니다. 쓸모를 다 한 것들, 즉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 사체, 낙엽, 배설물, 옷, 가죽 제품, 종이 등이 다 썩는다. 쇠조차도 녹이 슬고 썩어 부스러진다. 썩는 것은 동식물과 쓸모를 다한 것들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운명이다.

부패는 죽은 것들이 분해되는 전 과정을 아우른다. 이것은 형질 변용이고 소멸이며 다른 한편으로 생성이기도 하다. 부패와 생성은 하나로 포개지는데, 이는 지구 생명이 순환하고 번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생태학에서 구더기, 미생물, 세균류들은 죽은 것들의 자연의 분해자다. 이것들은 썩은 것은 먹어 치우며 유기물이나 무기물로 쪼개서 식물들의 영양분으로 만든다. 미생물이나 곤충 같은 땅의 분해자들은 죽은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 얼마나 부지런히 가공해 내는지.

잘 썩는 것들이야말로 지구 생명을 이롭게 한다. 플라스틱 같이 썩지 않는 것은 미세한 조각으로 쪼개질 뿐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쓰레기의 처리는 인류 최대

의 고민거리다. 이를테면 미세 플라스틱은 땅과 해양을 오염시킨다. 이것들은 먹거리와 함께 우리 몸에 들어와 위해를 가하는 원인 물질이다. 썩는 것들로 지구 생명은 번성한다. 이를테면 퇴비 재료는 썩은 식물들로 땅으로 돌아가서 토양을 살리는 영양분으로 탈바꿈한다. 반대로 썩지 않는 것들은 지구의 영구적 골칫거리이고 재앙으로 남을 뿐이다.

우리의 세계가 분해 세계와 분해에 저항하는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 살아 있는 것들에게 부패와 분해는 궁극의 운명이다. 죽은 것들은 부패와 분해로 되돌리는 능력을 기반으로 자연계는 순환을 이어간다. 부패라는 과정이 없다면 못 생명을 대를 이어 살아갈 수가 없다. 일부러 찾아서 읽은 생명 과학자 후지하라 다쓰시는 '분해의 철학'에서 "부패 기능이 약화되면 먹이 사슬의 기반이 약화되고 이 기반이 약화됨으로써 사슬의 연결이 이완된다. 그리하여 흙이나 바다로부터 주방을 경유하여 인간의 입에 다다른 음식이 저급화되거나 그 양이 감소되어 기아를 낳는다"라는 구절에 무릎을 친다. 부패가 자연의 섭리라면, 부패에 저항하는 것은 생명 본연의 몫이다. 부패의 기능 속에서 생명 순환의 원리가 작동한다. 모든 생명체는 부패와 분해에 저항하는 세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제 생명 정보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자신은 부패한 뒤 무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자연의 섭리다.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은 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테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을 견문하며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자" 원불교 교전 속성요론(率性要論)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비(是非)를 함부로 말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할 때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한 번 알면 그것을 자꾸 전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임금님 이발을 하러 간 이발사가 임금님 귀가 크다고 하는 것을 발설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지 않더라도 잡지 못해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외쳤고, 그 대숲에서 나는 소리를 임금님이 듣고 이발사밖에 없다 해서 그 이발사가 죽게 된다.

그러한 우화가 있는데도 사람에게서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자꾸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면 거기에서 대해 자기도 모르며 큰 흡이나 되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서 알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알았다 싶으면 어떤 화제 거리를 얻은 것처럼 열심히 전파한다. 전파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로 그름을 드러내지 말자

조금 부풀려서 얘기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하는 것이고, 말은 전파력을 갖는 동시에 한없는 증식력을 가진다. 머리만 나왔던 것이 나중에는 손발도 달리고 색깔까지 칠해져서 전파되는데 그러한 일로 정작 잘못을 한 당사자는 여론에 무참하게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자칫 그러한 익명의 가해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기 십상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을 견문하며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자"는 그 다른 사람의 그름을 가지고 재미 삼아서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지, 그 잘못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無關心)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 그 잘못이 만약 어떤 사회나 단체에 피해가 있는 것이라 한다면 분명히 그 잘못의 전위를 알려서, 당연히 사과할 일이면 사과하고 바를 일이면 바꾸고 처벌을 받을 일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구해주는 일이고 더 적극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더 공부해서 더 성숙한 사람은 어찌겠는가.

성숙한 공부인은 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남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만약에 진리에 대한 실천이 철저한 사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철저한 사람이 어디까지가 '남'이고 어디까지가 '나'겠는가. 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어떤 사람이 한 잘못 또는 저 지구 한 모퉁이에서 어떤 사람이 한 잘못, 이러한 잘못에도 몹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사

생일신(四生一身)의 보살의 마음이고 성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경계를 그 국한을 자꾸 넓혀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체득해 가고 실천해 가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안타까워할지언정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자나 성인들이 하는 처사를 우리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법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해 가지고 법이 서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불평을 할 때가 있다. 성자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지 그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죄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분별을 오히려 지공무사(至公無私)하고 원만구족(圓滿具足)하게, 성성적적(惺惺寂寂)하게, 분명히 장중의 구슬같이 보는 것이다.

이 지구 어느 모퉁이에서 어떤 중생이 하는 일이라고 그 일을 내 품밖에 분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고 우주만유가 다 이름은 각각 다르나 돌이 아닌 줄을 아는 시방 일가 사생일신의 마음이 된다고 했다. 아마 성인들의 정말 성숙한 공부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잘못된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용서해 주고 복돋아 주고, 열 번 잘못하면 열한 번째 용서해 주는 그러한 자비를 베푸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기고



이영화  
비움박물관장

어머니 산 무등산의 넓은 품과 생명줄로 흐르는 광주천을 품고 있는 빛고를 광주는 의로운 고장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대항하는 광주 사람들은 떨쳐 일어났고, 도도한 역사 흐름에 함께 하며 평화의 땅을 만들어 애썼다. 나라 위해 의로움을 잃지 않고 평화의 노래 했던 광주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되고, 찬란한 꽃이 됐다. 아름다운 광주는 한반도의 빛고을이자, 지구상의 빛고을이다.

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목에서 비움박물관은 해마다 오월이 되면 광주 민중항쟁을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바로 사회·문화적으로 역사 발전을 도모하고 성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침 5월 18일은 반세기 전에 제정된 '세계 박물관의 날'이기도 해 의미를 더한다.

매년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던 비움박물관은 올해 특별히 광주 트라우마센터와 공동 전시를 기획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5·18 특별 전시 '별이 된 자

오월에 부르는 평화의 노래

들을 위하여' (무로 관란)는 독재 권력에 맞서 목숨 걸고 민주화에 기여했던, 별이 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다양한 기록과 사진을 통해 작은 주먹밥에 얽힌 사연과 광주 정신을 잇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광주트라우마센터 회원들의 작품 10여 점과 비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닳고 닳은 오래된 주걱 200여 점, 가마솥, 대나무 평상, 상 등을 만날 수 있다.

5·18 당시 광주에 대동 세상은 '주먹밥'으로 대표된다. 시장 상인을 비롯해 어머니들은 밥을 지어 시위대, 시민들과 나눴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주걱과 가마솥은 바로 우리가 꿈꾸었던 대동 세상을 상징한다. 박물관은 전시 개막일인 10일에는 함께 주먹밥을 나누는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1980년 오월 광주는 권력에 눈먼 자 권력에 눈먼 자들의 무법천지였고 무정부 상태였다. 하지만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광주는 좀더독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는 광주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오직 '사람다운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의 땅을 다졌다.

어느새 세월은 사십여 년이나 흐르고,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 정도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 숙이지는 못 할방정 죽은 독재자의 말을 따라 하며 영부새처럼 광주를 육하고 광주사람들 육되게 하는 비겁자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社說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경각심은 유지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기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국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방역 규제들이 사라진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격리 해제와 노 마스크 덕분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가 1만 명대에 이르르고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 중이다. 특히 확진자 격리 해제로 코로나에 걸려도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염자들이 급속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끝까지 경각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엔데믹 선언을 계기로 의료 역량을 높이는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 변화로 코로나19 수준 이상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보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는 광주의료원 설립은 정책적 배려 속에 반드시 통과돼야 마땅하다.

구제역 비상...차단 방역으로 '청정 전남' 사수

구제역이 4년여 만에 국내에서 다시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사육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와 그제 제주시의 한우 농장 세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축산 당국은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농가에서 사육하는 450여 마리를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제역은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혀·잇몸·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소 146건, 돼지 280건 등 총 427건이 발생했

는데 지난 2019년 1월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구제역 발생지는 축사 밀집 지역인 대다 발생 농장에 사료 차량 등 열대가 드나들었고, 이들 차량이 전국적으로 329개 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육지부에서 유일하게 청정 지역을 유지해 온 전남도와 소·돼지 사육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을 막으려면 사육 농가에 대한 차량과 사람의 출입 통제, 검사와 소독 등 초기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발생 지역 우제류 가족의 반입 제한도 필수적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돼 온 백신 일제 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해 항체 형성을 돕고, 종사자들의 대규모 행사 참여도 자제해야 한다. 지자체와 유관 기관, 농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애써 지켜 온 구제역 청정 지역의 지위를 사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05년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입단은 일대 사건이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TV를 통해 한국의 안방에 들어왔고, 당대 최고의 축구 클럽이었던 맨유는 한국 축구팬들의 '홀담'이 됐다. 아인트호벤에서 맨유로 이적한 박지성은 7시즌 동안 리그 우승 4회 등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손흥민도 독일에서 잉글랜드 토트넘으로 이적해 월드컵 클래스 반열에 올랐다. 9시즌 동안 리그에서만 쏘아 올린 골이 103개. 지난 시즌에는 특히 라리가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 적합한 미드필더이기 때문이다.

이적

손흥민보다 우승 트로피를 먼저 들어 올린 선수는 뜻밖에도 김민재였다. 터키 리그에서 뛰다가 수비 축구의 본고장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해 첫 시즌에 우승의 1등 공신이 되었다. 카테나치오(빛장수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곳에서 '철기둥'이라는 별명을 얻고 리그 최고 수비수가 된 김민재는 지금 맨유, 맨시티, 첼시 등 빅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은 이강인이다. 스페인 축구 매체는 올 여름 프리메라리가에서 이적이 예상되는 '빅 네임 세 명'을 뽑았는데, 이강인이 메시, 벨링엄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의 현재 연봉은 50만 유로(약 7억 3000만 원)로 '마요르카의 에이스'지만 팀에서 조차 10위권에 들지 못하는 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를 원하는 팀은 많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 토트넘, 뉴캐슬, 애스턴 빌라, 울버햄튼 등이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탈리아 나폴리도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이강인은 특히 라리가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 적합한 미드필더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팀으로의 이적은 개인의 능력과 감독의 작전 그리고 선수들과의 호흡이 잘 맞아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강인은 완전체 플레이 메이커이고 김민재는 수비의 기동이다. 한국 축구 공격과 수비의 현재와 미래인 이들이 다음 시즌에는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고 필지. 한국 팬들의 '흙구장'은 어디가 필지 궁금하다. /유재만 편집담당1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